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Human
Papillomavirus Vaccination

울산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주원덕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도일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6월

울산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주원덕

주원덕의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 사 위 원 박 주 식 (인)

심 사 위 원 박 종 희 (인)

심 사 위 원 김 도 일 (인)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2019 년 6 월

국문요약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여성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uman Papillomavirus, HPV) 예방접종여부와 영향요인들의 관계를 추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경기도 소재 약 860 병상의 B 대학병원을 방문한 여성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여성 18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나이, 결혼 여부, 학력, 월 평균수입 등 일반적 특성, HPV 예방접종 여부와 자궁경부암 검진 여부 등 건강 관련 특성,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 정답수, 자궁경부암에 대한 주관적 지식, 자궁경부암에 대한 관심도, HPV 관련 건강신념, HPV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 건강인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각 변수와 HPV 예방접종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HPV 관련 건강신념의 하위요소인 지각된 유익성 ($p=0.002$), HPV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 ($p=0.043$), 건강인지 ($p=0.004$)가 HPV 예방접종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궁경부암에 대한 주관적 지식 ($p=0.053$)은 신뢰수준 90%에서 유의하게 HPV 예방접종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HPV 관련 건강신념의 하위요소인 지각된 장애성 ($p=0.058$)은 신뢰수준 90%에서 HPV 예방접종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변수를 카이제곱분석한 결과 나이 ($p < 0.0001$), 결혼여부($p < 0.0001$) 등은 HPV 예방접종 여부와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 HPV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 ($t = 2.152, p = 0.034$)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후 HPV 예방접종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궁경부암에 대한 관심 ($p = 0.001$), HPV 관련 건강신념의 하위요소인 지각된 유익성 ($p < 0.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HPV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의 HPV 예방접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HPV 백신에 대한 지각된 유익성, HPV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 건강인지, 30대 이하의 젊은 연령, 미혼 여성 등이고 HPV 백신 미접종 여성의 향후 예방접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HPV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이다. 자궁경부암에 대한 관심과 지각된 유익성은 HPV 예방접종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젊은 미혼 여성들에게 HPV 백신의 유익성을 홍보하고 HPV 백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HPV 백신의 접종율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젊은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자궁경부암 예방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태도, 건강신념

목차

국문요약	iv
표 목차	viii
그림 목차.....	ix
부록 목차	x
감사의 글	xi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및 논문의 구성.....	3
II. 문헌 고찰	5
1.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	5
2. 관심.....	6
3. 건강인지.....	9
4. HPV 관련 백신접종태도.....	15
5. HPV 관련 건강신념.....	17
III. 연구 가설 및 연구 모형의 설정	21
1. 연구 가설의 설정.....	21
2. 연구 모형의 설정.....	24
IV. 연구의 방법	25
1. 연구의 대상.....	25
2. 측정도구.....	25
3. 변수의 정의.....	25
1)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	25
2) HPV 관련 건강신념.....	26
4. 자료 수집 방법.....	27
5. 자료 분석과 통계 방법.....	27
V. 연구 결과	29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9

2. 대상자의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 관심도, HPV 관련 건강신념, HPV 예방 접종 태도, 건강인지.....	30
3.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31
4.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3
5.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4
6.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검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로지스틱 회귀분 석.....	35
7. HPV 예방접종 여부와 자궁경부암 검진 여부의 상관관계.....	36
8. 인구통계적 변수와 HPV 예방접종 여부의 상관관계.....	37
1) 연령.....	37
2) 결혼.....	38
3) 학력.....	38
4) 월평균소득.....	39
VI. 결론	40
1. 연구 결과의 논의.....	40
2. 논문의 한계점.....	45
3. 미래 연구의 제언.....	46
참고 문헌.....	48
부 록.....	56
Abstract	60

표 목차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9
<표 2> 대상자의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 관심도, HPV 관련 건강신념, HPV 예방접종 태도, 건강인지.....	31
<표 3>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로지스틱 회귀 분석.....	32
<표 4>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회귀분석.....	34
<표 5>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회귀분석.....	35
<표 6>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검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로지스틱 회귀 분석.....	36
<표 7> 자궁경부암 검진과 HPV 예방접종 여부의 교차표.....	36
<표 8> 연령과 HPV 예방접종 여부의 교차표.....	37
<표 9> 결혼과 HPV 예방접종 여부의 교차표.....	38
<표 10> 학력과 HPV 예방접종 여부의 교차표.....	38
<표 11> 월평균소득과 HPV 예방접종 여부의 교차표.....	39

그림 목차

<그림 1> HPV 예방접종여부와 영향요인들의 관계.....	24
-----------------------------------	----

부록 목차

<부록 1> 설문지.....	56
-----------------	----

감사의 글

경영학과 석사과정 입학 면접때 교수님께서 새로운 학문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각오가 필요하다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체계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지도교수님의 격려와 자상한 지도가 없었다면 결코 이 과정을 마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낯설었던 학문을 깊이있게 가르쳐주신 울산대학교 경영학과 여러 교수님들과 김도일 지도교수님의 정성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배려로 후원해주신 부모님과 아내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6월 주원덕 올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사람유두종(人乳頭腫) 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백신이 2007 년 9 월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이래 많은 여성들이 접종을 받게 되었고, HPV 백신을 만 12 세 여아에게 의무적으로 접종하는 법안이 2015 년 12 월 정기국회 예산안 심의에 통과하여 2016 년부터 초등학교 6 학년부터 중학교 1 학년 여학생들이 무료로 HPV 백신을 접종 받게 되었다.

HPV 는 자궁경부암(子宮頸部癌)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밝혀졌다 (Walboomers 등, 1999). 자궁경부암이란 여성의 자궁 입구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이다. 우리나라에서 7 번째로 많은 여성암으로 연간 약 4,000 명의 여성들이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된다.

자궁경부암은 정기검진으로 조기 발견하면 완치 가능하며, HPV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자궁경부암의 90%이상이 HPV 감염 때문에 발생하므로 HPV 감염을 예방하면 암에 걸리지 않게 된다. 이것은 B 형간염 백신을 접종하면 만성 B 형간염에 걸리지 않게 되므로 간암 발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원리이다. 독일의 바이러스 학자인 Harald zur Hausen 은 HPV 가 자궁경부암의 원인이라는 것을 입증한 공로로 2009 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인간면역억제바이러스(HIV)를 발견한 프랑스의 과학자 Françoise Barré-Sinoussi, Luc Montagnier 등과 공동으로 수상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세 종류의 HPV 백신이 시판되고 있는데, 4 가 백신인 한국엠에스디(주)의 가다실주™과 9 가 백신인 가다실 9 주™, 2 가 백신인 한국그락소스미스클라인(주)의 서바릭스주™이 그것이다. 세 가지 백신은 가격과 예방범위에서 차이를 보이고 소비자가 스스로 어느 백신을 맞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 동종 경쟁상품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시장점유율은 가다실 9 주™와 가다실주™가 90%를, 서바릭스주™이 10%를 점유하고 있고 2011 년까지 연간 1,000 억원의 매출성장세를 보이다가 일본 등지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고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급격하게 매출이 감소하여 2014 년 연간 매출 100 억원으로 감소하였다. 12 세 여아에 대한 의무접종이 시행되었지만 그 이상 연령의 여성들은 스스로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우리나라 여성들의 HPV 예방접종률은 약 30% 정도로 보고되었다. 여성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HPV 예방접종을 한다면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아 예방접종을 결정하게 되므로, HPV 백신접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의 HPV 예방접종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HPV 예방접종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자궁경부암 예방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및 논문의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여성의 HPV 예방접종여부와 영향요인들의 관계를 추정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대상자의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주관적 지식 정도와 일치하는지 비교한다.

나. 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 HPV 관련 건강신념, HPV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다. 대상자의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 HPV 관련 건강신념, HPV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 건강인지 등 요인이 HPV 예방접종 여부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한다.

라. 자궁경부암 검진과 HPV 예방접종 여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마. HPV 예방접종 의도와 영향요인들의 관계를 추정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의도를 종속변수로 영향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바. HPV 예방접종 태도와 영향요인들의 관계를 추정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를 예방접종 태도로 하였을 때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다.

본 논문은 총 6 장으로 되어 있으며 1 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의 목적을 언급하였다. 2 장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중요한 개념들을 살펴보았다. 3 장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연구가설 및 모형을 설정하였다. 4 장에서는

연구의 방법을 설명하였고 5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분석하였으며 6 장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및 연구의 한계점 그리고 미래연구에 대한 제언을 기술하였다.

II. 문헌 고찰

1.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

지식(knowledge, 知識)이란 넓은 뜻으로는 사물에 관한 개개의 단편적인 실제적, 경험적 인식을 뜻하고, 엄밀한 뜻으로는 원리적·통일적으로 조직되어 객관적 타당성을 요구할 수 있는 판단의 체계를 말한다 (두산백과, 2016).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은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으로 나눌 수 있다. Brucks (1985)는 어떤 제품군에 대한 선행 지식의 효과를 그 제품군 내에서 구매전 정보 검색의 다양한 특성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 선행 지식이 새로운 지식 습득을 증진시키고 탐색 효율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의 개념적 구별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객관적 지식은 지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정답수를 뜻하며, 본 연구에서는 Kim & Park (2007)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Kim (2017)이 7개 문항으로 간소화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주관적 지식은 스스로 자궁경부암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것이다.

자궁경부암에 대한 우리나라 여성들의 지식정도를 측정한 다수의 연구들이 있다. 20대 여대생들의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은 이은주 (2011)의 연구에서는 10점 만점에 6.21 ± 1.69 점이었고, 김정효 (2009)의 연구에서는 8점 만점에 3.18 ± 2.04 점이였다. 김혜원 (2009)의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정도가 교육 전 20점 만점에 4.41 ± 3.20 점에서 교육 후 $11.31 \pm$

3.20 점으로 향상되었다. 박선영 (2001)은 중년 여성의 암에 대한 지식측정에서 총 27 점 만점에 평균 13.8 점이였다. 기혼여성을 대상으로한 고흥욱 등(2002) 연구에서는 10 점 만점에 평균 4.88 점이였고, 조인숙 등(2004)의 연구에서는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은 15 점 만점에 평균 8.58 점, 정귀임 등(2004)의 연구에서는 18 점 만점에 10.3 점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은 연구마다 측정도구가 다르고, 표본집단의 결혼여부나 나이에 따라 지식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의 일치여부를 평가한 선행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여부와 연령을 제한하지 않고 미혼여성과 기혼여성, 10 대부터 50 대이상의 여성을 모두 연구대상으로 포함하고, 자궁경부암에 대한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의 일치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2. 관심

관심 (interest, 關心)이란 주의력이나 흥미가 특정한 사물로 향하고 있을 때의 심적 태도나 감정을 말한다. 인간의 의식은 항상 어떤 대상을 향하고 있다. 따라서 관심은 의식의 본질, 즉 의식의 지향성(志向性)을 나타내는 말이다. 영어의 'interest'에는 이익관계라는 뜻이 있으나, 이것은 의식이 향하는 대상으로서의 관심에서 파생한 뜻이다. 또 독일어의 'Sorge'의 역어(譯語)로서 사용될 경우에는 특히 Martin Heidegger 의 철학용어를 가리킨다.

그의 말을 빌리면 인간은 '세계-내(內)-존재'로서 환경세계에 대하여는 항상 배려하고(besorgen), 타인에게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쓰고(fürsorgen),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쓰면서(sorgen) 사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 3 가지 계기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인간의 존재방식은 '괘념(掛念: Sorge)'인데, 관심은 이 '괘념'의 뜻으로 사용된다.

의식이 향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2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관심은 넓은 뜻에서 대상과 관련을 가진 마음의 주관적 상태이다(예를 들면, 예술이라든지 정치에 관심을 갖는 따위 등). 이러한 심적 상태는 감정적·비합리적인 요소를 포함하지만, 자극이 주어지면 어떤 특징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일으킬 경향이 있다. 둘째, 권력과 경제적 재물을 얻으려고 생각할 때처럼 개인의 사적 이익이라는 뜻에서의 관심이 있다. 권력이나 재물의 획득이라는 목적을 가급적이면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수단의 선택이 필요하게 된다. 선택은 목적달성을 위한 계산이기 때문에 이 관심은 계산과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관심이다 (두산백과, 2016).

보건복지부 국민영양조사 (2012)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인 관심 순위는 건강, 가정/가족, 경제/재테크, 자녀교육, 직장/사업 순으로, 건강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수영 (2014)에 의하면 건강과 관련된 관심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사통합검색 (KINDS) 서비스 등을 통해 건강 관련 키워드의 트렌드를 살펴 보면 2004~ 2013 년까지 KINDS 서비스에서 검색 가능한 전체 기사 수는 연평균 10.7%씩

증가하였는데, ‘건강’이라는 단어가 제목에 포함된 기사 수는 14.6% 증가하였다. 키워드 별로 보면 ‘걷기’, ‘등산’ 등 운동과 관련된 단어, ‘힐링’,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단어, ‘다이어트’, ‘성형’ 등 외모와 관련된 단어, ‘건강식품’, ‘검진’ 등 질병예방/관리와 관련된 단어들의 기사 수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다이어트’, ‘성형’, ‘외모’ 등의 단어가 제목으로 들어간 기사 수는 연평균 34.4%가 증가해 동 기간 동안 관련 기사 수가 12 배나 증가했다. 건강과 외모에 대한 높은 관심, 정신적인 치유와 위안을 바라는 심리 등은 다양한 유행어와 수요를 창출하며 시장 트렌드를 형성한다.

질병에 대한 관심과 예방 행동의 상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비교적 드물다. Moorman 등 (1993)은 소비자의 예방적 건강 행동의 모델에서 건강 동기부여와 건강 능력의 역할에 대한 연구에서 매스미디어 등을 통한 건강정보 획득 행동과 다이어트식단과 같은 건강유지행동에 대한 다양한 소비자 특성의 개인적이고 결합적인 효과의 모델을 테스트하였는데, 건강 능력과 건강 동기부여의 상호작용이 소비자의 건강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Cooley 등 (2013)은 흡연자인 폐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에서 건강행동, 변화가능성, 관심에 대한 예비연구에서 폐암 환자의 가족은 환자와 비슷한 갯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고, 금연, 운동, 식이조절, 스트레스조절 등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환자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와 같이 질병에 대한 관심도가 건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은 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PV 예방접종’이라는

건강행동에 ‘자궁경부암’이라는 질병에 대한 관심도가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3. 건강인지

건강인지(health perception)란 건강상태지각(perceived health status)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신의 건강상태를 ‘건강하다’ 또는 ‘건강하지 못하다’ 라고 스스로 인지하는 것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5 점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뜻한다.

건강인지는 반드시 의학적인 건강상태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국가지표의 하나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민건강통계-국민건강영양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개인의 주관적 평가로 측정된 지표이다. 건강상태는 전통적으로 기대수명이나 유병률과 같은 객관적 지표로 측정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의학적 진단 여부와는 별개로 개인이 느끼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도 개인의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질병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의 수준을 측정하여 건강상태를 파악하게 된 것이다. 본인이 고혈압으로 투약을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원만하게 하면서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반면에 특별히 아픈 곳이 없더라도 건강을 걱정하고 염려하여 자신의 건강상태를 낮게 평가할 수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파악되는 주관적 건강상태, 즉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7 년 현재 29.2%로 낮은 수준이다. 이 비율은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연령별로는 20 대가 가장 높고 70 세 이상이 가장 낮다.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낮은 양상을 보인다. 1998 년부터 2017 년까지 주관적 건강상태는 약 29-47%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진국들에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은 60% 이상에 이른다. 한국의 경우 객관적 건강 지표인 기대수명은 OECD 평균보다는 높지만 주관적 건강상태는 OECD 국가들 중 거의 최하위에 속한다. 한국보다 기대수명이 약 7 세가 적은 멕시코의 경우에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65.5%에 이를 정도로 한국보다 높다. 한국인은 유럽 및 미주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의 객관적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주관적으로는 건강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윤수영 (2006)에 보고에서도 한국인의 건강인지는 실제보다 과소평가하고 보이는 것 중시한다고 한다. OECD 국가별 웰빙 수준을 측정하여 발표하는 'How's Life? 2013' 보고서에 따르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최하위의 수치를 보인다. OECD 전체로 68.7%의 응답자가 자신이 '매우 건강하다' 또는 '건강하다'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36.8%의 응답자만이 그렇게 답하여 30.0%로 가장 낮은 일본에 이어 31 개국 중 30 위를 차지하였다.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의 문화적 성향 등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매우 낮은 수치가 아닐 수 없다. The Philips Center for Health and Well-being 에 서 31 개국 약 4 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의 나이에 맞게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의 40%가 ‘매우 좋음’ 또는 ‘ 좋음’이라고 응답한데 반해 한국은 21%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는 조사에 참여한 국가 중 대만(16%), 노르웨이(17%), 스웨덴(18%)에 이어 가장 낮은 수치에 속한다. 같은 조사에서 좀 더 광범위하게 “당신의 전반적인 건강 및 웰빙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긍정응답 비율은 전체적으로 62%였고 한국은 이보다 낮은 52%로 31 개국 중 25 위였다. 시간에 따른 변화 추이를 살펴 보면, 더욱 부정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012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2007 년에 급격히 떨어진 후 2009 년까지 회복되었으나 이후 2012 년까 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의 건강 및 웰빙 수준에 있어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 기준으로 데이터 가용한 OECD 33 개국의 출생 시 기대수명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81.1 세로 영국 등과 함께 13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영아 사망률 또한 1,000 명당 3 명으로 30 개국 중 9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국가별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중으로 비교해 봐도 한국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OECD 평균은 52.7%이고 한국은 30.2%로 비교 가능한 40 개 국가 중 5 번째, OECD 국가 중에서는 2 번째로 낮다. 이와 같이 한국은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비만 인구 비중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다른 나라에 비해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보기 어렵

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한국인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낮게 평가한다. 비만도와 관련해서는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과체중/비만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스스로 과체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Philips 조사 평균치를 훨씬 넘어선다. Philips 보고서에서 31 개국 약 4 만명에게 “스스로 과체중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 결과, 전체의 3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OECD 결과(52.7%)와 비교해 봤을 때 과체중인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자신이 과체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Philips 보고서에서 40%가 스스로를 과체중이라 응답한데 반해 OECD 결과에서는 69%가 과체중/비만으로 보고되었고, 유사하게 호주의 경우 23% 만이 스스로를 과체중이라 응답한데 반해 실제 과체중/비만 비율은 61%였다. 반대로 한국은 43%가 스스로를 과체중이라 응답한데 반해 OECD 조사에 의하면 실제로는 30%가 과체중/비만에 해당된다. 즉, 미국인들은 스스로 과체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실제 과체중 비율보다 29% 낮았지만, 한국인의 경우 스스로 과체중이라 생각하는 비율이 실제 비율보다 13% 높은 차이를 보인다. 미국, 호주 등 대부분 국가의 많은 사람들은 과체중이면서 스스로는 정상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한국인들은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과체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 측면에서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한국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실제로 높은 자살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많이/ 다소/ 거의 없는/ 전혀 없는’의 4 가지 선택 중 매우 많이 또는 다소를 선택한 비율은 전체적으로 33%였으며 한국은 39%로 높은 편에 속했다. 말레이시아(11%), 덴마크(12%)가 가장 낮은 그룹에 속했고, 영국과 러시아가 53%로 가장 높은 그룹에 속했다. 스트레스와 함께 정신건강의 지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살률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OECD 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국가로, 매년 인구 10 만명 당 30 명 이상이 자살로 사망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는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비만 비율 등 국가의 건강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여러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나은 결과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건강 수준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스트레스나 자살률 등의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는 주관적인 지표에서나 객관적 지표에서 모두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명이나 영아사망률, 비만을 등과 같이 글로벌 건강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 상에서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특히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국민들 스스로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특히 과체중 혹은 비만도와 관련해서는 더욱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OECD 국가의 경우 실제 과체중인 사람의 비율보다 스스로 과체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15%p 정도 낮지만, 한국의 경우 실제보다 과체중이라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13%p 정도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그만큼 건강과 외부로 드러난 자신의 모습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는데 비해 현실은 이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런 한국인의 성향은 건강과 외모에 대한 사회 전반의 높은 관심으로 표출되고 있다.

김지태 (2011)는 생활체육 참여 장애인의 건강상태지각과 건강증진행동 및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생활체육 참가자의 건강상태지각은 건강증진행동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활체육 참가자의 건강상태지각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생활체육 참가자의 건강증진행동은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Kaplan, Barell, 그리고 Lusky(1988)에 의하면 건강상태는 건강과 질병의 신체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 또는 건강과 질병에 대한 주관적, 객관적 관심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계훈방, 정기원 및 권선진(1995)은 장애인들이 본인이 인지한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본 결과, 매우 건강하다 13.5%, 비교적 건강한 편이다 34.9%, 그저 그렇다 8.7%,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34.2%, 전혀 건강하지 못하다 8.7%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48.4%)과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42.9%)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활체육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관한 조사는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지속적인 참여활동의 필요성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인지가 건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실제로 건강인지가 ‘HPV 예방접종’과 같은 건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4. HPV 관련 백신접종태도

태도는 개인이 특정 행동을 수행할 때 그 행동에 대해 내리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HPV 백신접종의도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에 의하면, 의도는 행위를 하게 하는 직접적인 결정 요인이고, 태도는 이러한 의도를 갖도록 하는 행위의 중요한 영향요인이다. 또한 ‘행동에 대한 태도’는 특정 행위에 대하여 느끼는 싫거나 좋은 감정을 의미하며 행위를 수행한 후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행위 신념에 의해 결정된다.

Kang 등 (2010)은 HPV 관련 백신접종태도는 HPV 백신 수용관련 의도와 행동을 변경하거나 백신접종 결정의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을 말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ang 과 Moneyham (2010)이 여대생의 HPV 관련 백신접종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일부 의료인이나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및 여성들은 백신으로 인해 나중에 생길지도 모르는 부작용이나 백신 투여로 인해 조기성교나 고위험 성행위 증가 가능성 등에 대한 염려 또는 백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Do 등, 2009; Li 등, 2009). 반면 영국여성 (Walsh 등, 2008), 13-

27 세의 말레이시아 여성 (Wong 등, 2008), 18-49 세의 싱가포르 여성들 (Pitts 등, 2009)의 HPV 관련 백신접종태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Choi 등 (2008)의 연구에서도 HPV 감염과 자궁경부암의 상관관계에 대해 인지정도가 낮은 한국 대다수의 여성에게 HPV 백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HPV 백신접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HPV 백신접종을 한 국내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Lee 등 (2010)의 연구를 살펴보면 HPV 관련 백신지식과 HPV 백신접종태도는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HPV 백신접종에 대해 교육이나 홍보를 할 때는 여성들이 HPV 백신접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백신의 안전성을 알려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낮추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간호학과 학생들의 HPV 관련 백신접종태도에 대한 An (2012)의 연구에서도 HPV 백신접종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었으나,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점은 고가의 백신접종 비용으로 나타났다. 이는 HPV 감염에 이환되기 쉬운 여대생들에게 HPV 백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바탕으로 HPV 백신접종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안 마련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HPV 백신접종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주요 이유가 백신접종에 따른 부작용과 고가의 백신접종 비용으로 나타남에 따라 (Wong 등, 2008),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HPV 백신접종을 국가백신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고가의 백신접종 비용부담을 줄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백신접종을 장려하고 있다. 영국, 독일, 호주, 이탈리아는 HPV 백신접종을 국가보건프로그램에 도입했으며 미국 텍사스

주는 처음으로 HPV 백신접종을 의무화했고 (Jun, 2010), 미국질병통제센터는 HPV 백신접종을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백신지원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9-18 세 소녀들에게 HPV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Tiro, 2007).

현재 국내에서 HPV 백신을 접종하는 여성들의 연령층 및 HPV 백신을 접종한 여성들의 HPV 백신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Lee 등 (2010)은 HPV 백신을 접종한 여성들의 접종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HPV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여성들의 백신접종을 권장하기 위한 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HPV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가 HPV 예방접종 여부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5. HPV 관련 건강신념

건강신념은 질병통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인간이 지니는 신념으로 (Rosenstoc, 1974), HPV 예방접종의 수용도 및 예방접종을 하는데 관련된 요인을 건강신념모형에 근거하여 HPV 백신접종에 대한 지각된 민감성, 심각성, 유익성, 장애성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건강신념모델에 근거하여 Choi 등 (2008)이 개발한 HPV 관련 건강신념도구를 Lee 와 Park (2011)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건강신념이론은 원래 사회심리학자 Lewin (1915)의 場이론을 Rosenstock (1974)이 수정한 것으로 건강행위를 연구하기 위한 하나의 이론이다. 건강신념이란 건강행위가 일어나기 직전의 마음상태로서 동기 유발에

의해 높아질 수 있다. 건강행위는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건강시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적 건강행위 둘째, 어떤 증상을 느꼈을 때 진단을 받기 위해 취해지는 질병행위, 셋째 특정한 진단을 받았을 때 치료를 위해 취해지는 환자역할 행위이다 (간호학대사전, 1996).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 HBM)은 1950년대 공중건강 프로그램이 실패하는 원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개념적 틀로 제안된 이래 개인의 건강신념과 건강행동간의 관련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가장 활발히 이용되어 온 이론이다. 특히 질병 예방 행동과 환자 역할 행동을 설명하거나 예측하는데 널리 활용되어 왔으며 예방접종과 같은 질병예방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에서 예방접종 이행 및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Janz 등, 1984; Kahneman 등, 1979).

건강신념모델은 사람들의 건강관련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핵심요인으로 두 가지 주요 신념을 제시한다. 첫 번째 신념은 지각된 위협(perceived threat)으로 질병의 위협이나 위험한 정도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말하며 이것은 다시 지각된 민감성(perceived susceptibility)과 지각된 심각성(perceived severity)으로 구성된다. 두 번째 신념은 행동의 평가(behavioral evaluation)로 지각된 유익성(benefits)과 지각된 장애성(barriers)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한다 (Li 등, 2009; Walsh 등, 2008).

HPV 백신접종 관련 건강신념은 HPV 예방접종의 수용도 및 예방접종을 하는데 관련된 요인을 건강신념모형에 근거하여 HPV 백신접종에 대한 지각된 민감성, 심각성, 유익성, 장애성을 의미한다 (Glanz 등, 2002). 지각된 민감성은

특정 질병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한 인식으로서, 곧 질병에 걸릴 가능성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Rosenstoc, 1974). 즉, 자궁경부암에 대해 예민하게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스스로 자궁경부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인지하는 정도를 말한다 (Ko 등, 2011). 지각된 심각성은 특정 질병에 걸렸을 경우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결과의 심각성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Rosenstoc, 1974) 자궁경부암이라는 질병 자체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자궁경부암에 걸렸을 경우나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 어느 정도 심각하게 될 것인가를 말한다 (Lee, 2012). 지각된 유익성은 질병의 위협이나 민감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처방안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뜻하는 것으로 (Rosenstoc, 1974), 자궁경부암 예방 행동을 하게 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나 효능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한다 (Lee, 2012). 지각된 장애성은 특정 건강 관련 행위를 실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와 권고된 행동실천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들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Rosenstoc, 1974), 자궁경부암 예방 행동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비용, 시간소비, 불편함, 고통 등)를 말한다 (Tiro 등, 2007).

Choi 와 Park (2006)의 연구에서 건강행위는 개인이 그 상황에 대한 개인적 민감성을 믿을 때, 그 상황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인지할 때, 행위를 취하는데 있어 유익성이 높고 장애성이 낮다고 인지할 때 그리고 적절한

활동계기가 주어질 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Chan 등 (2009)의 연구에서 HPV 관련 백신접종태도는 대상자들의 건강신념과 관련이 있었으며 자궁경부암 혹은 생식기 사마귀에 대해 걱정할수록 HPV 백신접종을 하고 싶어했다. Choi 등 (2008)의 연구에서도 언제라도 HPV 에 감염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와 HPV 감염이 심각한 질병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HPV 백신접종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Lee 등 (2013)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은 산부인과 치료경험이 있고 자궁경부암 가족력이 있고 예방접종 계획이 있는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과거 연구들을 고찰해 볼 때 건강신념의 네 가지 하위요소 모두 HPV 예방접종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신념의 네 가지 하위요소인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이 각각 HPV 예방접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III. 연구 가설 및 연구 모형의 설정

1. 연구가설의 설정

Brucks (1985)는 어떤 제품군에 대한 선행 지식의 효과를 그 제품군 내에서 구매전 정보 검색의 다양한 특성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 선행 지식이 새로운 지식 습득을 증진시키고 탐색 효율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의 개념적 구별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김선화 (2016)의 연구에서 HPV 관련 지식과 HPV 관련 백신접종 태도, HPV 관련 지식과 HPV 관련 건강신념 간에는 정적상관이 있었다. HPV 백신접종을 한 국내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Lee 등 (2010)의 연구를 살펴보면 HPV 관련 백신지식과 HPV 백신접종태도는 순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이 HPV 예방접종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Choi 와 Park 등 (2006)의 연구에서 건강행위는 개인이 그 상황에 대한 개인적 민감성을 믿을 때, 그 상황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인지할 때, 행위를 취하는데 있어 유익성이 높고 장애성이 낮다고 인지할 때 그리고 적절한 활동계기가 주어질 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Chan 등 (2009)의 연구에서 HPV 관련 백신접종태도는 대상자들의 건강신념과 관련이 있었으며 자궁경부암 혹은 생식기 사마귀에 대해 걱정할수록 HPV 백신접종을 하고

싶어했다. Choi 등 (2008)의 연구에서도 언제라도 HPV 에 감염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와 HPV 감염이 심각한 질병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HPV 백신접종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자궁경부암에 대한 관심이 HPV 예방접종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Chan 등(2009)의 연구에서 HPV 관련 백신접종태도는 대상자들의 건강신념과 관련이 있었으며 자궁경부암 혹은 생식기 사마귀에 대해 걱정할수록 HPV 백신접종을 하고 싶어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HPV 관련 건강신념이 HPV 예방접종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H3-1: HPV 관련 건강신념의 하위개념인 지각된 민감성이 HPV 예방접종 여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3-2: HPV 관련 건강신념의 하위개념인 지각된 심각성이 HPV 예방접종 여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3-3: HPV 관련 건강신념의 하위개념인 지각된 유익성이 HPV 예방접종 여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3-4 HPV 관련 건강신념의 하위개념인 지각된 장애성이 HPV 예방접종 여부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방접종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다. 국립암센터의 암검진검수행태 조사(2018)에 의하면 20 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미검진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건강하기 때문이 58.8%를 차지하고 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도 자궁암검진과 같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주요한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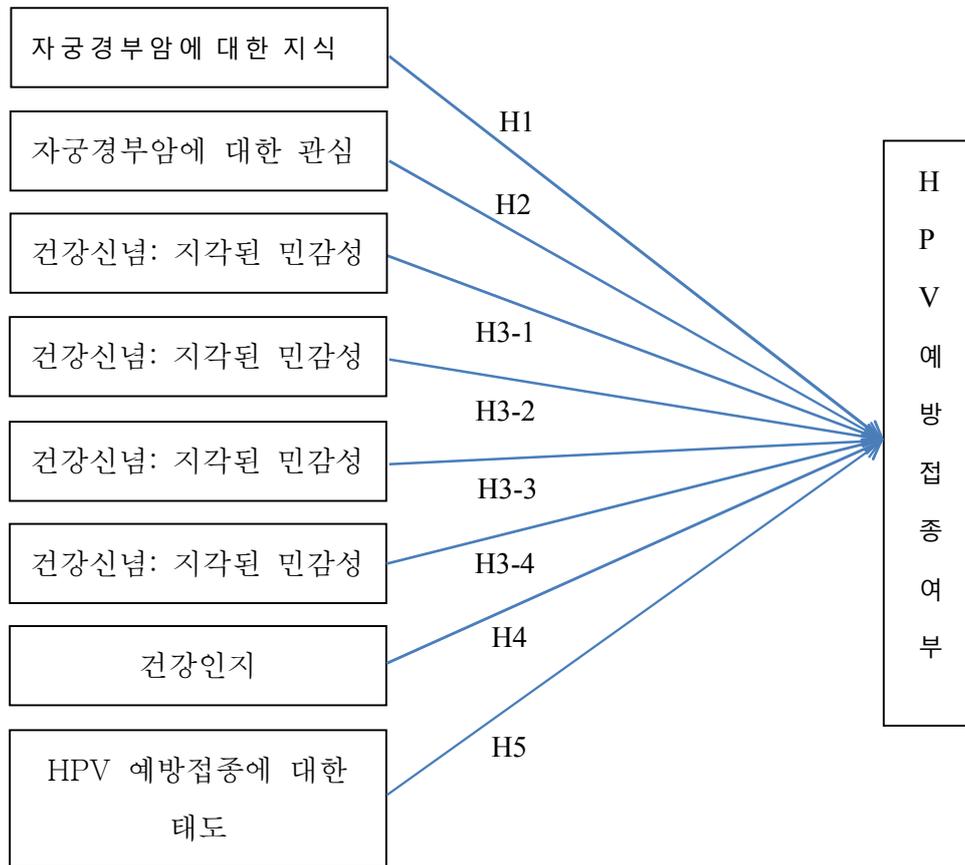
H4: 건강인지가 HPV 예방접종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태도 이론에 의하면 태도는 소비자의 행동 및 행동의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학식, 2015). Voss 등 (2003)도 소비자태도는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였다. 따라서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는 예방접종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5: HPV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가 HPV 예방접종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2. 연구 모형의 설정

위의 연구가설에 기초하여 모형을 설정하면 <그림 1>과 같다. 최종 결과변수는 HPV 예방접종여부이며 선행변수로는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 그리고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 관심 그리고 건강신념 및 건강인지 등이 선행변수로 사용되었다.



<그림 1> HPV 예방접종여부와 영향요인들의 관계

IV.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경기도 소재 약 860 병상의 B 대학병원을 방문한 여성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도구

대상 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측정도구는 나이, 결혼 여부, 학력, 월 평균수입 등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건강 관련 특성에 대한 측정도구는 HPV 예방접종 여부와 자궁경부암 검진 여부 등 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나이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의 5개 구간으로 나누었다. 월 평균수입은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의 5개 구간으로 나누었다.

3. 변수의 정의

1)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의 측정도구는 Kim & Park (2007)이 개발한 것을 Kim (2017)이 7개 문항으로 간소화한 것이다. 이 도구는 총 7개 문항으로

자궁경부암과 성생활의 관련성, 자궁경부암의 증상 및 치료,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의 유용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의 측정은 ‘맞음’, ‘틀림’, ‘모르겠음’으로 평가하였다. 정답인 경우 1 점, 오답 또는 ‘모르겠음’인 경우는 0 점으로 처리하였고 점수의 범위는 총 0-7 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궁경부암에 대한 객관적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201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0.654$ 였다.

2) HPV 관련 건강신념

HPV 관련 건강신념은 Choi 등 (2008)이 건강신념모델 (health belief model)에 근거하여 개발한 도구를 Lee 와 Park (2011)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HPV 에 감염될 가능성과 HPV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묻는 지각된 민감성 2 문항, 질환에 대한 심리적 심각성과 질환이 악화될 경우 장래 생활에 미치는 심각성을 묻는 지각된 심각성 2 문항, 예방접종 행위의 이로움을 묻는 지각된 유익성 2 문항, 고가의 접종 비용, 예방접종 부작용, 3 회 접종을 번거로움 및 주사 시 통증을 묻는 지각된 장애성 4 문항을 포함하여 총 10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5 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 점, ‘그렇다’ 4 점,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3 점, ‘그렇지 않다’ 2 점,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으로 처리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10-50 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HPV 관련 건강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와 Park (2011)의

연구에서 도구의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지각된 민감성 Cronbach's $\alpha = 0.71$, 지각된 심각성 0.74, 지각된 유익성 0.74, 지각된 장애성 0.62 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경기도 소재 B 대학병원을 방문한 여성에게 조사원이 본 연구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이해하여 스스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여성에 한해서 설문지를 배부하고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에는 연구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오직 학문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보장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5. 자료분석과 통계 방법

총 188 명이 설문에 응하였고 불성실한 답변 5 부를 제외한 183 부의 설문지를 연구자료로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 관심도, HPV 관련 건강신념 및 각 하위차원, HPV 예방접종 태도, 건강인지 등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전체 대상자의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 정답수, 자궁경부암에 대한 주관적 지식, 자궁경부암에 대한 관심도, HPV 관련 건강신념의 하위차원, HPV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 건강인지 등 요인이 HPV 백신접종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HPV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여성의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 정답수, 자궁경부암에 대한 주관적 지식, 자궁경부암에 대한 관심도, HPV 관련 건강신념의 하위차원, HPV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 건강인지 등 요인과 향후 HPV 백신접종 의향에 대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 정답수와 주관적 지식의 연관성에 대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인구통계적 요인에 대한 HPV 예방접종 여부, 자궁경부암 검진과 HPV 예방접종 여부의 상관관계를 카이제곱검정으로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 패키지는 IBM SPSS Statistics Subscription Trial program 을 사용하였다.

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은 10 대 1.1% (2 명), 20 대 30.13% (55 명), 30 대 26.2% (48 명), 40 대 25.1% (46 명), 50 대 이상 17.5% (32 명)이었다. 결혼 상태는 미혼 48.4% (88 명), 기혼 49.5% (90 명), 이혼 2.2% (4 명)이었다. 학력은 국졸 0.5% (1 명), 중졸 2.2% (4 명), 고졸 19.7% (36 명), 대졸 68.9% (126 명), 대학원졸 8.7% (16 명)이었다. 월 평균소득은 200 만원 미만 29.5% (52 명), 300 만원 미만 43.8% (77 명), 400 만원 미만 14.8% (26 명), 500 만원 미만 4.5% (8 명), 500 만원 이상 7.4% (13 명)이었다.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은 사람은 78.1% (143 명), 받지 않은 사람은 21.9% (40 명)이었다. HPV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38.8% (71 명), 받지 않은 사람은 61.2% (112 명)이었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범주	빈도	백분율(%)
연령	10 대	2	1.1
	20 대	55	30.1
	30 대	48	26.2
	40 대	46	25.1
	50 대 이상	32	17.5

결혼여부	미혼	88	48.4
	기혼	90	49.5
	이혼	4	2.2
학력	국졸	1	0.5
	중졸	4	2.2
	고졸	36	19.7
	대졸	126	68.9
	대학원졸	16	8.7
월평균소득	<200 만원	52	29.5
	<300 만원	77	43.8
	<400 만원	26	14.8
	<500 만원	8	4.5
	≥500 만원	13	7.4
자궁경부암검진	유	143	78.1
	무	40	21.9
HPV 예방접종	유	71	38.8
	무	112	61.2

2. 대상자의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 관심도, HPV 관련 건강신념, HPV 예방접종 태도, 건강인지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 관심도, HPV 관련 건강신념, HPV 예방접종 태도, 건강인지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 정답수는 7 점 만점에 최소 0 점, 최대 7 점으로 평균 4.83 ± 1.46 점이었다. 자궁경부암에 대한 주관적 지식은 5 점 만점에 평균 2.85 ± 0.91 점이었다. 자궁경부암에 대한 관심도는 5 점 만점에 평균 2.23 ± 0.99 점이었다. HPV 관련 건강신념은 5 점 만점에 평균 3.34 ± 0.42 점이었다.

각 하위영역별 평균은 지각된 민감성 2.71 ± 0.86 점, 지각된 심각성 3.57 ± 0.81 점, 지각된 유익성 3.90 ± 0.71 점, 지각된 장애성이 3.24 ± 0.70 점이었다. HPV 예방접종 태도는 총 5 점 만점에 평균 4.25 ± 0.63 점이었다. 피험자의 건강인지는 5 점 만점에 평균 3.06 ± 1.04 점이었다.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 점수와 주관적 지식은 선형회귀하였다 (p<0.0001).

<표 2> 대상자의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 관심도, HPV 관련 건강신념, HPV 예방접종 태도, 건강인지

요인	범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표준편차
자궁경부암 지식 정답수	0-7	0	7	4.83±1.46
자궁경부암 주관적 지식	1-5	1	5	2.85±0.91
자궁경부암 관심도	1-5	1	5	2.23±0.99
HPV 관련 건강신념	1-5	2.3	4.7	3.34±0.42
지각된 민감성	1-5	1	5	2.71±0.86
지각된 심각성	1-5	1	5	3.57±0.81
지각된 유익성	1-5	1	5	3.90±0.71
지각된 장애성	1-5	1	5	3.24±0.70
HPV 예방접종 태도	1-5	2	5	4.25±0.63
건강인지	1-5	1	5	3.06±1.04

3.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HPV 관련 건강신념의 하위요소인 지각된

유익성 ($p=0.002$), HPV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 ($p=0.043$), 피험자의 건강인지 ($p=0.004$)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HPV 예방접종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궁경부암에 대한 주관적 지식 ($p=0.053$)은 신뢰수준 90%에서 유의하게 HPV 예방접종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HPV 관련 건강신념의 하위요소인 지각된 장애성 ($p=0.058$)은 신뢰수준 90%에서 HPV 예방접종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궁경부암에 대한 객관적 지식 ($p=0.843$), 자궁경부암에 대한 관심도 ($p=0.263$), HPV 관련 건강신념의 하위요소인 지각된 민감성 ($p=0.825$), 지각된 심각성 ($p=0.9$)은 HPV 예방접종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3>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독립변수	B	SE	Wald	자유도	p	Exp(B)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정답수	-0.027	0.134	0.039	1	0.843	0.974
자궁경부암에 대한 주관적 지식	0.447	0.231	3.746	1	0.053	1.563
자궁경부암에 대한 관심	0.227	0.203	1.254	1	0.263	1.255
지각된 민감성	-0.051	0.230	0.049	1	0.825	0.951
지각된 심각성	-0.031	0.245	0.016	1	0.600	0.970
지각된 유익성	1.096	0.348	9.916	1	0.002	2.993
지각된 장애성	-0.539	0.285	3.583	1	0.058	0.583
건강인지	0.607	0.208	8.499	1	0.004	1.835
HPV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	0.744	0.368	4.086	1	0.043	2.104

4.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 HPV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대상자가 향후 HPV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건강인지 ($t=2.152$, $p=0.034$)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후 HPV 예방접종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정답수($t=-0.589$, $p=0.557$), 주관적 지식($t=-0.371$, $p=0.712$), 관심도($t=-0.508$, $p=0.613$), HPV 관련 건강신념의 하위요소인 지각된 민감성($t=0.912$, $p=0.364$), 지각된 심각성($t=0.927$, $p=0.356$), 지각된 유익성($t=0.327$, $p=0.745$), 지각된 장애성($t=-1.531$, $p=0.129$), HPV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t=0.138$, $p=0.890$) 등은 향후 HPV 예방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자궁경부암 검진 여부와 HPV 예방접종 의도의 상관관계를 카이제곱검정한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p=0.246$).

<표 4>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회귀분석

독립변수	β	t	p	R ²	Adj R ²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정답수	-0.057	-0.589	0.557	0.146	0.070
자궁경부암에 대한 주관적 지식	-0.038	-0.371	0.712		
자궁경부암에 대한 관심	-0.055	-0.508	0.613		
지각된 민감성	0.092	0.912	0.364		
지각된 심각성	0.094	0.927	0.356		
지각된 유익성	0.037	0.327	0.745		
지각된 장애성	-0.148	-1.531	0.129		
건강인지	0.232	2.152	0.034		
HPV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	0.014	0.138	0.890		

5.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자궁경부암에 대한 관심 ($p=0.001$), HPV 관련 건강신념의 하위요소인 지각된 유익성 ($p<0.0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HPV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 정답수 ($p=0.686$), 자궁경부암에 대한 주관적 지식 ($p=0.857$), HPV 관련 건강신념의 하위요소인 지각된 민감성 ($p=0.692$), 지각된 심각성 ($p=0.5539$), 지각된 장애성 ($p=0.147$)은 HPV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5>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회귀분석

독립변수	β	t	p	R ²	Adj R ²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정답수	0.026	0.405	0.686	0.371	0.341
자궁경부암에 대한 주관적 지식	-0.012	-0.181	0.857		
자궁경부암에 대한 관심	-0.217	-3.367	0.001		
지각된 민감성	-0.026	-0.397	0.692		
지각된 심각성	-0.039	-0.595	0.553		
지각된 유익성	0.514	7.680	<0.0001		
지각된 장애성	-0.094	-1.455	0.147		
건강인지	-0.001	-0.011	0.991		

6.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검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검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피험자의 ‘건강인지’의 계수는 -0.373 이고 유의확률(p)은 0.059 로 유의수준 0.1 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건강인지는 검진을 받는 것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건강인지가 클수록 검진을 안 받는다는 의미이다.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정답수 (p=0.139), 자궁경부암에 대한 주관적 지식 (p=0.465), HPV 관련 건강신념의 하위요소인 지각된 민감성 (p=0.331), 지각된 심각성 (p=0.549), 지각된 유익성 (p=0.685), 지각된 장애성 (p=0.335)은 자궁경부암 검진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6>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검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독립변수	B	SE	Wald	자유도	p	Exp(B)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정답수	0.187	0.127	2.191	1	0.139	0.829
자궁경부암에 대한 주관적 지식	0.167	0.228	0.533	1	0.465	0.847
지각된 민감성	0.234	0.240	0.947	1	0.331	0.792
지각된 심각성	0.145	0.243	0.360	1	0.549	0.865
지각된 유익성	0.120	0.295	0.165	1	0.685	0.887
지각된 장애성	-0.279	0.290	0.928	1	0.335	1.322
건강인지	-0.373	0.198	3.553	1	0.059	1.452

7. HPV 예방접종 여부와 자궁경부암 검진 여부의 상관관계

접종 받은 사람 대 접종 받지 않은 사람은 검진 안 받은 사람 40 명 중 11 명 대 29 명 (27.5% vs. 72.5%)이고, 검진 받은 사람 143 명 중 60 명 대 83 명 (42% vs. 58%)으로 Pearson 카이제곱 값 2.752, 양측검정 유의확률 0.097 로 유의수준 0.1 에서 유의하였다 (표 7 참조). 즉, 검진 안받은 사람이 접종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표 7> 자궁경부암 검진과 HPV 예방접종 여부의 교차표

		검진유무		
		검진함	검진안함	합계
접종유무	접종함	60 (42.0%)	11 (27.5%)	71 (38.8%)
	접종안함	83 (58.0%)	29 (72.5%)	112 (61.2%)
	합계	143 (100%)	40(100%)	183 (100%)

8. 인구통계적 변수와 HPV 예방접종 여부의 상관관계

인구통계적 변수를 교차분석한 결과 연령 ($p < 0.0001$), 결혼 여부($p < 0.0001$) 등은 HPV 예방접종 여부와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 연령별 접종률은 10 대 50.0%, 20 대 52.7%, 30 대 52.1%, 40 대 30.4%, 50 대 이상 6.3%로 30 대 이하 젊은 여성의 HPV 백신 접종률이 40 대 이상 중년 여성에 비해 높았다. 미혼 여성의 HPV 백신 접종률이 53.4%으로 기혼여성 26.7%, 이혼여성 0%에 비해 높았다. 학력 ($p = 0.102$), 월 평균소득($p = 0.819$) 등은 HPV 예방접종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1) 연령

연령과 HPV 예방접종 여부는 Pearson 카이제곱 값 23.977, 양측검정 유의확률 $p < 0.0001$ 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8 참조).

<표 8> 연령과 HPV 예방접종 여부의 교차표

		연령					합계
		10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이상	
접종	접종함	1 (50.0%)	29 (52.7%)	25 (52.1%)	14 (30.4%)	2 (6.3%)	71 (38.8%)
유무	접종안함	1 (50.0%)	26 (47.3%)	23 (47.9%)	32 (69.6%)	30 (93.8%)	112 (61.2%)
합계		2 (100%)	55 (100%)	48 (100%)	46 (100%)	32 (100%)	183 (100%)

2) 결혼

결혼과 HPV 예방접종 여부는 Pearson 카이제곱 값 15.990, 양측검정 유의확률 $p < 0.0001$ 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9 참조).

<표 9> 결혼과 HPV 예방접종 여부의 교차표

		결혼			
		미혼	기혼	이혼	합계
접종유무	접종함	47 (53.4%)	24 (26.7%)	0 (0%)	71 (39.0%)
	접종안함	41 (46.6%)	66 (73.3%)	4 (100%)	111 (61.0%)
합계		88 (100%)	90 (100%)	4 (100%)	182 (100%)

3) 학력

학력과 HPV 예방접종 여부는 Pearson 카이제곱 값 7.738, 양측검정 유의확률 $p = 0.102$ 로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 10 참조).

<표 10> 학력과 HPV 예방접종 여부의 교차표

		학력					합계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접종유무	접종함	0 (0%)	1 (25.0%)	8 (22.2%)	53 (42.1%)	9 (56.3%)	71 (38.8%)
	접종안함	1 (100%)	3 (75.0%)	28 (77.8%)	73 (57.9%)	7 (43.8%)	112 (61.2%)
합계		1 (100%)	4 (100%)	36 (100%)	126 (100%)	16 (100%)	183 (100%)

4) 월평균소득

월평균소득과 HPV 예방접종 여부는 Pearson 카이제곱 값 1.541, 양측검정 유의확률 $p=0.819$ 로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 11 참조).

<표 11> 월평균소득과 HPV 예방접종 여부의 교차표

		월평균소득					합계
		<200 만원	<300 만원	<400 만원	<500 만원	≥500 만원	
접종 유무	접종함	18 (34.6%)	34 (44.2%)	10 (38.5%)	4 (50.0%)	5 (38.5%)	71 (40.3%)
	접종안함	34 (65.4%)	43 (55.8%)	16 (61.5%)	4 (50.0%)	8 (61.5%)	105 (59.7%)
합계		52 (100%)	77 (100%)	26 (100%)	8 (100%)	13 (100%)	176 (100%)

VI. 결론

1. 연구결과의 논의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은 건강신념을 고취하여 건강행위를 실천하게 하므로 HPV 예방접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의 가설은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이 HPV 예방접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 점수는 HPV 예방접종 여부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고 ($p=0.843$), 자궁경부암에 대한 주관적 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HPV 예방접종 여부에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p=0.053$). 조사대상 여성들의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 점수와 주관적 지식은 일치하였다 ($p<0.0001$). 이러한 결과를 비추어 볼 때 HPV 예방접종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궁경부암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며, 질환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HPV 관련 건강신념은 HPV 예방접종의 수용도 및 예방접종을 하는데 관련된 요인을 건강신념모형에 근거하여 HPV 백신접종에 대한 지각된 민감성, 심각성, 유익성, 장애성을 의미한다 (Glanz 등, 2002). 본 연구에서 HPV 관련 건강신념의 하위요소인 지각된 유익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HPV 예방접종 여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p=0.002$), 지각된 장애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HPV 예방접종 여부에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p=0.058$). 반면 HPV 관련 건강신념의 하위요소인 지각된

민감성 ($p=0.825$), 지각된 심각성 ($p=0.9$)은 HPV 예방접종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다른 연구들과 비교해 보면, Choi 와 Park 등 (2006)의 연구에서 건강행위는 개인이 그 상황에 대한 개인적 민감성을 믿을 때, 그 상황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인지할 때, 행위를 취하는데 있어 유익성이 높고 장애성이 낮다고 인지할 때 그리고 적절한 활동계기가 주어질 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HPV 예방접종의 유익성이 높다고 인지할 때 접종률이 높고 HPV 예방접종의 장애성이 높다고 인지할 때 접종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Choi 와 Park 등 (2006)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반면, HPV 감염에 대하여 지각된 민감성과 심각성은 HPV 예방접종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Choi 와 Park 등 (2006)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는 HPV 감염의 지각된 민감성 및 심각성이 HPV 예방접종에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 다른 연구들과도 일치하지 않는 결과였다. Chan 등 (2009)의 연구에서 HPV 관련 백신접종태도는 대상자들의 건강신념과 관련이 있었으며 자궁경부암 혹은 생식기 사마귀에 대해 걱정할수록 HPV 예방접종을 하고 싶어하여 HPV 감염의 지각된 민감성 및 심각성이 HPV 예방접종에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Choi 등 (2008)의 연구에서도 언제라도 HPV 에 감염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와 HPV 감염이 심각한 질병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HPV 백신접종 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Lee 등 (2013)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은 산부인과 치료경험이 있고 자궁경부암 가족력이 있고 예방접종 계획이 있는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과거 연구결과를

통해 HPV 감염 위험과 자궁경부암의 심각성을 중점적으로 홍보해 왔다면, 앞으로는 본 연구 결과를 향후 HPV 예방접종 홍보전략에 활용하여 HPV 예방접종의 유익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HPV 백신의 가격을 낮추고, 접종회수를 3 회에서 2 회로 줄이고, HPV 백신접종의 부작용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HPV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HPV 예방접종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43$). 이러한 HPV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궁경부암에 대한 관심 ($p=0.001$), HPV 관련 건강신념의 하위요소인 지각된 유익성 ($p<0.001$)이었다. Choi 등 (2008)의 연구에서는 HPV 감염과 자궁경부암의 상관관계에 대해 인지정도가 낮은 한국 대다수의 여성에게 HPV 백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HPV 백신접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HPV 백신접종을 한 국내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Lee 등 (2010)의 연구에서는 HPV 관련 백신지식과 HPV 백신접종태도는 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기존 연구 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 정답수 ($p=0.686$), 자궁경부암에 대한 주관적 지식 ($p=0.857$) 등은 HPV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비추어 볼 때 HPV 예방접종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궁경부암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며, 과거 연구결과를 통해 HPV 감염 위험과 자궁경부암의 심각성을 중점적으로 홍보해 왔다면, 앞으로는 본 연구 결과를 향후 HPV

예방접종 홍보전략에 활용하여 HPV 예방접종의 유의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인지가 HPV 예방접종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방접종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다고 추정하였는데 그 근거로 국립암센터의 암검진검수행태 조사(2018)에 의하면 20 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미검진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건강하기 때문이 58.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도 자궁암검진과 같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주요한 이유라고 추정하였다.

그런데, 가설과는 반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피험자의 건강인지가 접종여부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종속변수를 검진여부로 하였을 때는 건강인지가 검진여부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접종여부와 검진여부에 건강인지가 미치는 영향의 부호가 반대라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인구통계적 변수인 연령 ($F=6.652$, $p<0.001$), 결혼 여부($F=8.621$, $p<0.001$) 등은 HPV 예방접종 여부와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 특히 30 대 이하 젊은 여성의 HPV 백신 접종률이 40 대 이상 중년 여성에 비해 높았고 미혼 여성의 HPV 백신 접종률이 53.4%으로 기혼여성 26.7%, 이혼여성 0%에 비해 높았다. HPV 백신의 접종 허가 연령이 9 세~26 세이고 활발한 성생활이 20 대~30 대 나이에 이루어지므로 30 대 이하 여성이 HPV 백신 접종률이 40 대 이상 중년 여성에 비해 높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미혼

여성의 높은 접종률은 HPV 백신의 예방목적에 부합한다. 반면, 학력 ($F=1.965$, $p=0.102$), 월 평균소득($F=0.378$, $p=0.824$) 등은 HPV 예방접종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학력과 HPV 예방접종 여부가 상관관계가 없었던 것은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이 HPV 예방접종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HPV 백신 접종 가격이 적지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소득과 HPV 예방접종 여부가 상관관계가 없었던 것은 HPV 백신 가격이 우리나라 여성들의 구매력의 범위 내에 있고 다른 요인, 예를 들면 HPV 관련 건강신념의 하위요소인 지각된 유익성과 지각된 장애성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HPV 백신을 하나의 상품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마케팅 기법을 활용하면 HPV 백신 접종률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림 1>과 같은 HPV 예방접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작용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델에서 HPV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는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며 HPV 예방접종에 대한 지각된 유익성은 직접적으로 또는 HPV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HPV 예방접종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Kim 등(2017)은 현재 국내에서 HPV 백신을 접종하는 여성들의 연령층 및 HPV 백신을 접종한 여성들의 HPV 백신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Lee 등 (2010)은 HPV 백신을 접종한 여성들의 접종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HPV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여성들의 백신접종을

권장하기 위한 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HPV 예방접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HPV 관련 건강신념의 하위요소인 지각된 유익성, HPV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 피험자의 건강인지, 30 세 이하의 젊은 연령, 미혼 등이었다. 또한, HPV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가 HPV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대상자가 향후 HPV 예방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HPV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궁경부암에 대한 관심과 HPV 관련 건강신념의 하위요소인 지각된 유익성이었다.

2.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특정 지역의 병원에 내원한 여성들을 표본집단으로 조사하여 이를 모집단인 우리나라 여성 전체로 일반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설문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문항수를 간략하게 줄여 HPV 예방접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HPV 예방접종에 미치는 요인들을 기존연구에 기초하여 선별하였으나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하기 힘든 질문들은 제외되었다. 예를 들어 개인의 병력이나 성생활 등에 대한 질문은 포함을 시키지 못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HPV 예방접종은 남성도 가능하고 현재 12 세 여아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사업도 양성평등의 측면에서 향후 남아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Weiss 등, 2010; Park 등, 201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여성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여, 남성의 HPV 예방접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예를 들면 부인 또는 여자친구의 HPV 감염력, 자궁경부암 또는 전암병변, 생식기사마귀에 이환된 과거력 등에 대한 질문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국내 시장에 접종가격과 예방범위가 다른 세 종류의 HPV 백신이 출시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HPV 백신의 종류에 상관없이 접종여부만 조사하였고 구체적인 HPV 백신 제품의 종류는 조사하지 못하여, 소비자들이 어떤 백신을 선택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할 수 없었다.

3. 미래 연구의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된 표본추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문 문항도 보다 정교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모형의 타당성을 위해서 관련 변수들을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의 병력이나 성생활에 대한 내용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로 수립된 모델의 검증을 위해 30 대 이하 젊은 미혼여성에게 자궁경부암과 HPV 백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관심을 갖게 하며 HPV 백신의 유익성을 홍보함으로써 HPV 예방접종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향상시켜 실제로

접종률이 향상되는지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향후 HPV 백신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대상은 여성으로 한정하였으나, 향후 연구 대상을 남성으로 확대하여 남성의 HPV 예방접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HPV 백신의 국가예방접종사업과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의 HPV 백신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질병에 대한 관심이 건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은 논제이다. 향후 자궁경부암 이외의 다른 질병에 대한 관심도가 건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 예를 들면 당뇨병에 대한 관심이 체중조절, 운동량, 절주 등의 건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Ajzen I.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991;50(2):179-211.
- An GJ. A study on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s human papillomaviru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ealth and Medical Science Cheongju University*. 2012;1(2):147-151.
- Baek SS, Song MS, Jeon MS. Knowledge of HPV and HPV vaccine and intention for STDs prevention between male and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2012;14(6):3149-3161.
- Bang KS, Sung SM, Koo BY, Kim MJ, Kim YN, Kim JS, et al. Female university students' HPV-related knowledge and influencing factors on HPV vaccination. *Journal of Korean Oncology Nursing*. 2011;11(3):186-192.
- Brucks M. The Effects of Product Class Knowledge on Information Search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Behavior*. 1985; 12 (June), 1-16.
- Chan SS, YanNg BH, Lo WK, Cheung TH, Hung Chung TK. Adolescent girls' attitude on human papillomavirus vaccination. *Journal Pediatric and Adolescent Gynecology*. 2009;22(2):85-90.

Choi C, Park J, Kang MG, Kim KS. The association between performance of hepatitis B vaccination and health belief factors among some aged person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006;23(4):89-104.

Choi KA, Kim JH, Lee KS, Oh JK, Liu SN, Shin HR. Knowledge of human papillomavirus infection and acceptability of vaccination among adult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2008;51(6):617-623

Cooley ME,¹ Finn KT, Wang Q, Roper K, Morones S, Shi L, Litrownik D, Marcoux JP, Zaner K, Hayman LL. Health behaviors, readiness to change, and interest in health promotion programs among smokers with lung cancer and their family members: a pilot study. *Cancer Nurs*. 2013 Mar-Apr; 36(2): 145-154

Do H, Seng P, Talbot A, Corda E, Coronado GD, Taylor VM. HPV vaccine knowledge and beliefs among cambodian american parents and community leaders.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2009;10(3):339-344.

Glanz K, Rimer BH, Lewis FM.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3rd ed. San Francisco. Jossey-Bass: 2002.

- Janz NK, Becker MH. The health belief model: A decade later. *Health Education Quarterly*. 1984;11:1-47.
- Jun EM. Knowledge about human papillomavirus (HPV) and attitude and acceptance of HPV vaccination among women.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0;12(6):3073-3086
- Kang HS, Moneyham L. Attitudes toward and intention to receive the human papillomavirus (HPV) vaccination and intention to use condoms among female Korean college students. *Vaccine*. 2010;28(3):811-816.
- Kahneman D, Tversky A.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1979;47(2):263-291.
- Kim HW. Comparison of factors associated with intention to receive human papillomavirus vaccine between male and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Women Health Nurse*. 2011;17(4):415-425.
- Kim JH, Park MK. Study on the knowledge of cervical cancer and human papillomavirus and preventive behavior intention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9;15(2):225-231.
- Ko KM. The Impact of Health Campaigns on the Public's Awareness & Behavior regarding Cervical cancer[master's thesi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11.p.1-119.

- Kuitto K, Pickel S, Neumann H, Jahn D, Metelmann, HR. Attitudinal and socio-structural determinants of cervical cancer screening and HPV vaccination uptake: A quantitative multivariate analysis. *Journal of Public Health*. 2010;18:179-188.
- Lee EJ, Park JS. Knowledge about cervical cancer, health belief and human papillomavirus vaccination rate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Oncology Nursing*. 2011;11(1):65-73.
- Lee KE. Factors associated with intention to receive human papillomavirus vaccine in undergraduate women: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4;21(4):457-465.
- Lee KW. *Cervical Cancer*. Seoul: Korea Medison Book Publisher, 2012.
- Lee MH, Kang HS, Lee KY. Knowledge, attitude, and motivation of human papillomavirus vaccination among Korean wome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0;12(3):1365-1377.
- Lee YE, Park JS, Choi EJ. The exact state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Knowledge about Cervical Cancer, Human Papillomavirus Vaccination-Related Health Belief and Vaccination Rat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2013;17(1):27-37.

Li J, Li LK, Ma JF, Wei LH, Niyazi M, Li CQ, et al.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human papillomavirus(HPV) and HPV vaccines among women living in metropolitan and rural regions of China. *vaccine*. 2009;27(8):1210-1215.

Marlow LA, Waller J, Evans RE, Wardle J. Predictors of interest in HPV vaccination. A study of British adolescents. *Vaccine*. 2009;27(18):2483-2488.

Moorman C, Matulich E. Model of Consumers' Preventive Health Behaviors: The Role of Health Motivation and Health Ability.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20, No. 2 (Sep., 1993), pp. 208-228

Park JS, Lee EJ. Predictors of human papillomavirus vaccination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1;17(4):346-358.

Park SJ, Park HJ. Knowledge regarding cervical cancer, human papillomavirus acceptance of vaccination in Korean adult 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2;19(2):201-211.

Pitts M, Smith A, Croy S, Lyons A, Ryall R, Garland S, et al. Singaporean women's knowledge of human papillomavirus (HPV) and attitudes toward HPV Vaccination. *Women Health*. 2009;49(4):334-351.

- Rosenstock IM. The health belief model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 Health Education Monographs. 1974;2(4):354-386.
- Tiro JA, Meissner HI, Kobrin S, Chollette V. What do women in the U.S. know about human papillomavirus and cervical cancer?, Cancer Epidemiology, Biomarkers & Prevention. 2007;16(2):288-294.
- Voss, K.E. Spangenberg ER, Grohmann B. Measuring the Hedonic and Utilitarian Dimensions of Consumer Attitud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003;40(3):310-320.
- Walboomers JM, Jacobs MV, Manos MM, Bosch FX, Lummer JA, Shah KV, et al. Human papillomavirus is a necessary cause of invasive cervical cancer worldwide. The Journal of Pathology. 1999;189(1):12-19.
- Walsh CD, Gera A, Shah M, Sharma A, Powell JE, Wilson S. Public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s human papillomavirus (HPV) vaccination. BMC Public Health. 2008;8(1):368-376.
- Weiss TW, Zimet GD, Rosenthal SL, Brenneman SK, Klein JD. Human papillomavirus vaccination of males: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physicians who vaccinate female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010;47(1):3-11.

Wong LP. Young multiethnic women's attitudes toward the HPV vaccine and HPV vaccin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Gynaecology & Obstetrics. 2008;103(2):131-135.

간호학대사전, 1996, 한국사전연구소

고광욱, 이덕희, 이용환, 손혜숙. (2002). 부산 일부 지역 여성들의 자궁경부암 조기 검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경험. 한국모자보건학회지, 6(1),93-105.

국립암센터. (2018). 2018년 암검진수검형태조사.

김경희. (201).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검진행위 실천에 대한 연구. 신한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향. (1992). 자궁경부암 검진행위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광주.

김선화. (2016). 여대생의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관련 감염예방행위의도 영향요인. 인제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효, 박미경. (2009). 일부 여대생의 자궁경부암 지식과 인유두종 바이러스 지식 및 감염예방행위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5(2),225-231.

김정효, 박미경. (2010).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포함한 자궁경부암 예방 성교육이 여대생의 인유두종 바이러스 지식과 자궁경부암 예방행위의도 및 성적 자율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6(2), 257-264.

- 김지태. (2011). 생활체육 참여 장애인의 건강상태지각과 건강증진행동 및 삶의 질의 관계.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9(1), 43-55
- 김혜원. (2009). 미혼 여대생에게 적용한 인유두종 바이러스 연계 자궁경부암 예방교육의 효과. 한국간호학회지, 39(2), 490-498.
- 두디피아 두산백과, 2016, <http://www.doopedia.co.kr/>
- 박선영. (2001). 암예방과 조기발견 교육이 중년기 여성의 암에 대한 지식, 태도, 예방적 검진 행위에 미치는 영향. 성인간호학회지, 13(3), 441-450.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 3차년도(2012) 결과 발표회 자료집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9). 국민건강통계-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2차년도(2017) 결과 발표회 자료집
- 윤수영. (2014). 한국인의 건강 인식: 실제보다 과소평가하고 보이는 것 중시한다. LG Business Insight, 2(12), 16-29.
- 이은주, 박정숙. (2011). 여대생의 자궁경부암 지식,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및 접종실태. 중앙간호학회지, 11(1), 65-73.
- 이학식, 소비자행동 6판, 2015, 집현재
- 정귀임, 박정숙. (2004). 비디오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제공이 중년 여성의 자궁경부암 지식,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모자보건학회지, 8(2), 211-223.
- 조인숙, 박영숙. (2004). 중년여성의 규칙적인 자궁경부암 검진이행관련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4(1), 141-149.

<부록 1>

설문지

본 조사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조사입니다. 조사의 결과는 오직 학문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각 응답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자: 분당차병원 부인암센터 주원덕

연락처: 031-780-6191

참여 동의

본인은 설문에 자의로 응하고 이 연구를 참여하는 동안 본인에게 어떠한 비용이나 위험이 따르지 않으며, 이 연구에 관한 모든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하고 대답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설명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로부터 본인의 익명을 보장하고 연구도중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으며, 연구의 결과가 출판될 수 있음을 설명 듣고 이에 동의 합니다

2019년 5월 일

참여자 성명 : (서명)

I. 자궁경부암에 대한 다음 문항이 맞는지 틀리는지 체크(V)하여 주기 바랍니다.

문항	맞음	틀림	모르겠음
임신을 하지 않은 여성은 자궁경부암에 걸리지 않는다.	①	②	③
자궁경부암에 걸리면 초기부터 통증을 느낀다	①	②	③
성생활을 하지 않으면 자궁경부암에 걸리지 않는다.	①	②	③
임신·출산의 경험이 많을수록 자궁경부암에 잘 걸린다.	①	②	③
자궁경부암은 일찍 발견되면 완치될 수 있다.	①	②	③
자궁암세포진 검사를 하면 자궁경부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다.	①	②	③
성 관계를 시작한 나이가 빠를수록 자궁경부암에 더 잘 걸린다.	①	②	③

II. 자궁경부암에 관한 지식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V)하여 주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자궁경부암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자궁경부암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III. 다음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관한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V)하여 주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쉽게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심각한 질병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앞으로 나의 미래에 지장이 클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접종은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접종은 생식기 사마귀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접종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접종의 부작용이 염려스러워 백신을 접종하기가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을 3회 접종하는 것은 번거롭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주사가 아플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IV.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V. 귀하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받았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앞의 문항에서 ② 아니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고) 라고 응답한 분만 답하여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도 부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

	그렇지 않다		아니다		
나는 앞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받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VI. 건강과 검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공정도 부정도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귀하는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VII. 인구통계적 변수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연령은?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이상

2. 귀하의 결혼 유무는?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3. 귀하의 학력은?

① 국졸이하 ② 중졸이하 ③ 고졸이하 ④ 대졸이하 ⑤ 대학원졸

4. 귀하의 월 평균소득은

① 200 만원미만 ② 300 만원미만 ③ 400 만원미만

④ 500 만원미만 ⑤ 500 만원이상

ABSTRACT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Human Papillomavirus
Vaccination**

Wonduk Joo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Ulsan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aime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human papillomavirus vaccination in Korean women.

One hundred eighty eight women, who visited B medical center in Gyeonggi-do, were enrolled for survey from May 1 through May 31, 2019. The women understood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had consent of enrollment. The survey included demographic variables, which are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average monthly income, and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which are HPV vaccination, Pap test. The survey also included questionnaire of knowledge about cervical cancer, subjective knowledge about cervical cancer, interest

about cervical cancer, questionnaire of health belief related to HPV, Attitude to HPV vaccination, and health perception. All the variables were analyzed to investigate correlation with HPV vaccinatio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perceived benefit ($p=0.002$), which is a subdomain of health belief, attitude to HPV vaccination ($p=0.043$), and health perception ($p=0.004$) significantly affected HPV vaccination. Subjective knowledge about cervical cancer ($p=0.053$) marginally affected HPV vaccination positively and perceived barrier ($p=0.058$), which is a subdomain of health belief, marginally affected HPV vaccination negatively. In terms of demographic variables, age ($p<0.0001$) and marital status ($p<0.0001$) were shown to b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HPV vaccination by Chi-square analysis. Linear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attitude to HPV vaccination ($t=2.152$, $p=0.034$) significantly affected intention to HPV vaccination. Interest about cervical cancer ($p=0.001$) and perceived benefit ($p<0.0001$), which is a subdomain of health belief, significantly affected attitude to HPV vaccination.

In conclusion, the factors affecting HPV vaccination in Korean women were perceived benefit and perceived barrier of HPV vaccination, attitude to HPV vaccination, health perception, age and marital status. The factor affecting intention to HPV vaccination was attitude to HPV vaccination.

On the basis of this result, it would be possible to promote HPV vaccination by advertising benefit of HPV vaccination and to young single women by making them to have positive

attitude. Therefore, a systematic program for cervical cancer prevention is needed for young single women.

Key words: Human papillomavirus, cervical cancer, vaccination, attitude, health belief